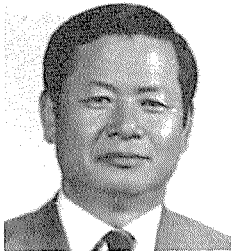


# 원貨 切上에 따른 通商振興 政策 方向



李 淳 雨  
商工部 通商振興局長

정부로서는 최근  
대미 무역흑자의 감소  
전반적인 수출둔화 등 경기의  
급격한 냉각상태를 우려하여 환율의  
안정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우리의 물가불안 요인을 감안할 때  
환율의 불안은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 시킬 우려가 크므로  
환율의 안정적 운용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 1. 원貨 切上의 背景 및 推移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世界經濟 秩序의 주축이 되어온 브레튼우드 體制는 1970년대 들어 世界 經濟勢力 관계의 변화에 따라 危機를 맞게 된다. 기본적으로 固定換率制라는 점에서 자국의 경제적 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는 限界를 갖고 있었던 IMF 체제는 특히 이 체제의 정착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미국경제의 位相變化에 따라 '78년 變動換率制로 전환하는 '킹스틴 체제'를 탄생시켰으며 이러한 전환은 국제통화 제도에 있어 통화가치 조정의 自由增大와 協力強化라는 특징을 가져왔고 최근들어서는 자유보다 國際協力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협력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85년 9월 G-5 간의 "Plaza 협정" 및 '87년 2월의 "Louvre 협정"이었으며 미국은 對外 貿易赤字 확대가 흑자국의 불공정무역 (unfair trade) 및 달러화의 가치가 부당하게 높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하에 市場開放과 함께 주요 흑자국의 對달러화 가치를 切上시키는데 압력을 강화하고 흑자국은 절상을 통한 換率의 적정수준 유지라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따라서, Plaza 회담 이후 달러화 약세를 반영하는 國際換率의 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엔화, 마르크화 등 주요 선진국 通貨뿐 아니라 NT 弗貨, 원貨 등 주요 黒字開途國 통화의 對外價値도 급속히 절상되어 왔다.

經濟發展段階과 換率變動과의 연관관계를 보면 대부분의 개도국과 같이 산업화 초기단계에는 平價切下가 지속되나 산업화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 國際競爭力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같이 交易相對國의 압력에 의해 평가절상이 불가피한 단계에 접어들다 할 수 있으며 우리의 경제력으로 볼 때에도 또한 비효율적인 과



원화의 실질실효 환율이 적정수준임을 고려할 때 향후 환율은 안정화 되어야 할 것이다.

도한 貿易指向의 産業體制를 시정하기 위해서 도 강세 통화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85.9 이후 '87년까지는 輸出市場에 있어 우리의 주요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대만 통화의 切上率이 각각 96.7%, 41.7%에 달했던 데 비하여 우리 원화의 切上率은 12.6%에 그쳐 相對的 平價切下 효과로('85.9을 100으로 보아 이 기간의 실질 실효환율을 보면 일본 155.4, 대만 105.7, 한국 97.9임) 우리의 수출 가격 경쟁력은 향상되었으며, 國際金利 하락, 國際原資材 가격하락과 함께 '3저 요인'에 의해 12%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經濟成長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88년 이후 일본·대만의 換率은 절하 또는 안정추세를 보여온데 비하여 원화는 '88년 15.8%, '89.4까지 2.7%나 절상됨으로써 우리의 輸出競爭力 약화요인이 되고 있다(실질실효 환율을 보면 일본 160.8, 대만 103.5, 한국 115.2).

특히 원貨 切上의 소위 J-Curve 효과로 말미암아 '88년까지는 '87년까지의 실질실효 환율 하락에 따라 수출이 '87년 36.2%, '88년 28.4%라는 획기적 증대를 이룩하였으나 '89년 들어서 勞使紛糾 등의 요인과 겹치면서 '88년 원화 절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輸出增加率을 1/4분기중 9.3%로 급속히 저하시키고 특히 物量基準으로는 負(-)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원화의 대외가치 수준에 대해서 미국의 公式立場은 그 동안의 절상노력은 인정하나 한국을 換率 操作國으로 지정하여 추가절상 압력을 지속하고 있는 입장인데 반하여,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의 Bergsten 박사는 원화의 대 달러화 適正換率을 680.6원으로 지적하고 있고(4월말 환율 666.2원과 비교하면 2.6% 과대 절상), 국내 연구기관인 KIET, KDI의 분석에 의하여도 '88년말 實質實効 換率은 이미 고평가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換率 水準은 미국의 주장과는

| 시 대 | 환 시 세              | 한 국     | 서 독·일본   | 미 국      |
|-----|--------------------|---------|----------|----------|
| A   | 평가절하시대(산업화단계)      | '85년까지  | '60년대까지  | 1 차대전까지  |
| B   | 상대국 압력에 의한 평가절상    | '85년 이후 | '70년대 이후 | 2 차대전까지  |
| C   | 경제적 우월성에 의한 자국화 강세 |         | '85년 이후  | '60년대까지  |
| D   | 평가절하 또는 환시세 불안정    |         |          | '70년대 이후 |

〈주요국의 換率 動向〉

|         | 85. 9. 20<br>(A) | '87말<br>(B) | '88말<br>(C) | '89. 4<br>(D) | 질 상 륜 (%) |       |       |
|---------|------------------|-------------|-------------|---------------|-----------|-------|-------|
|         |                  |             |             |               | A / B     | B / C | C / D |
| 원 / 弗   | 892. 20          | 792. 30     | 684. 10     | 666. 20       | 12. 6     | 15. 8 | 2. 7  |
| NT弗 / 弗 | 40. 47           | 28. 55      | 28. 18      | 26. 86        | 41. 7     | 1. 3  | 4. 9  |
| ¥ / 弗   | 238. 05          | 121. 00     | 125. 90     | 131. 28       | 96. 7     | -3. 9 | -4. 2 |

〈주요국별 실질실효 換率指數 推移〉

(’85. 9=100, 월평균)

| 연 도     | 한 국    | 대 만    | 일 본    | 서 독    |
|---------|--------|--------|--------|--------|
| '85. 12 | 93. 1  | 95. 4  | 112. 4 | 102. 5 |
| '87. 12 | 97. 9  | 105. 7 | 155. 4 | 114. 0 |
| '88. 12 | 115. 2 | 103. 5 | 160. 8 | 112. 3 |

\*모건 개런티은행 "World Financial Markets"

달리 適正水準에 이미 도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정부로서는 최근 대미 貿易黑字의 감소, 전반적인 輸出鈍化 등 경기의 급격한 冷却狀態를 우려하여 환율의 安定 努力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우리의 물가불안 요인을 감안할 때 환율의 불안은 景氣沈滯를 더욱 가속화 시킬 우려가 크므로 환율의 안정적 운용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2. 元貨 切上의 國民經濟的 影響

換率 變動은 수출입 변화로 인한 國際收支의 변동, 對外資産 및 負債 관계에의 변화, 産業構造의 변화 등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무역수지에 대한 換率變動 効果는 경쟁국의 환율 변동, 교역상품의 市場構造와 決濟通貨, 교역상품의 특성과 생산공정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Keynes의 所得決定 理論을 개방경제에 응용시킨 總支出 接近 理論에 따라 국제수지에 대한 영향을 보면 일반적으로 평가절상은 수출을 둔화시키고 수입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물가 하락 → 실질소득 증가 → 수입수요 증가를 가져오고, 교역조건 호전 → 실질소득 증가 → 수입증가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수입증대 效果가 크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이 가격 彈力的이고 수

입이 가격 非彈力的인 상황에서 수입의 促進 效果는 상대적으로 작을지 몰라도 輸出鈍化 效果는 크다 할 수 있다. 또한 換率 變動은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 개도국에 더 큰 逆作用을 주는 측면이 있는 바, 개도국의 무역업자들은 선물거래의 利用機會가 더 적고 더 비싼 연유로 보다 큰 不確實性에 직면하게 되므로 개도국(소규모 기업)들은 더욱 불리한 위치에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元貨 切上의 긍정적 效果 또한 看過되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의 實質所得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대외부채의 실질적 가치를 하락시켜 국민경제의 대외지출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비용을 저하시켜 기업의 採算性을 好轉시키는 요인도 있으며 경쟁력 상실 산업의 시장퇴출을 촉진시켜 産業構造 調整을 그만큼 앞당기는 肯定的 效果를 갖고 있다.

일본이 90%에 달하는 元貨 切上에도 불구하고 '87년 943억불, '88년 953억불 貿易黑字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때 産業體質과 산업구조, 경쟁력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미 輸出減少, 무역수지 黑字減少 등의 效果가 현재화 되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 보면 섬유, 의복, 고무제품 등 중소기업형 업종의 企業採算性 악화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勞動集約的이고 輸出依存的인 업종의 경쟁력 약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大企業은 元貨 切上으로 대량 원자재 구매에 따른 수입가격 下落, 외화 표시 채무에서 오는 換差益, 하청 중소기업에의 價格轉嫁 등으로 활로를 찾고 있는데 반하여 이러한 긍정적 效果없이 元貨 切上 效果를 그대로 부담하여야 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經營隘路가 가중되고 있다 할 수 있다.

### 3. 원貨 切上에 따른 政策 方向

#### 가. 基本 方向

이러한 원貨 切上에 대한 기본적인 對應 戰略은,

- 1) 원貨의 對外價値를 현재의 수준에서 凍結해 나가는 것
- 2) 高附加價値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산업구조의 高度化
- 3) 가격 競爭力 弱화에 대응할 생산성의 향상
- 4)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生産 據點 戰略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일본이 수요측면에서는 內需主導型 경제구조로의 전환, 공급측면에서는 기술개발, 사업다각화 등을 통한 産業構造 高度化 및 生産性 增大, 果敢한 海外投資 등으로 円高 현상을 오히려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國際化를 促進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우리도 이러한 戰略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對應 戰略들이 주로 産業政策的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본고에서는 通商 次元에서 어떠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냐에 焦點을 맞추고자 한다.

#### 나. 通商政策 方向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원貨 切上이 지금까지 미국의 무역적자 縮小라는 戰略的 次元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 대미흑자가 減少趨勢에 있고 원貨의 實質實効 환율이 적정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을 고려할 때 향후 환율은 安定化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국제수지 黑字基調의 정착(현재 흑자기조가 위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과 국제적인 地位 向上은 대내적으로는 市場 開放과 산업구조 조정의 推進,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活性化에 기여하는 責任 및 역할의 遂行 등 우리경제의 국제화와 개방화가 불가피한 추세라 하겠다. 또한, 이러한 開放化·國際化를 통하여 무역의 擴大 均衡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적인 원貨 切上 압력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競爭體制가 갖는 이득으로서 우리 경제의 效率性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方向일 수 있다.

우선 시장개방의 경우는 그 동안 수입자유화 豫示制를 통하여 수입자유화가 대폭 확대('84년 84.8%에서 '89년 94.7%, 특히 공산품은 86.7%에서 99.5%로 제고)되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잔존 輸入規制品目에 대한 단계적 수입자유화 계속 추진('89~'91 수입자유화 예시 계획 수립·공고), 39개 特別法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輸入制限의 제도의 대폭 개선 등으로 非關稅 貿易障壁을 완화하고, 수입관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공산품 평균관세율은 '89년 11.2%에서 '93년 6.2%로 인하)하는 한편 特別外貨貸出('89년 50억불) 및 수출입은행의 수입자금 융자 등으로 실질적으로 수입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증대 노력은 國內市場에 해외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일부 國際競爭力을 갖추지 못한 産業部門의 斜陽化가 급속히 촉진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다각적인 産業調整政策이 이러한 부문에 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술개발, 인력개발, 자동화 및 설비투자의 提高 등으로 해당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해 나아가는 이외에 산업피해 救濟制度의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需要能力을 강화하는 한편 斜陽産業으로 판단되는 부문은 신규 有望部門으로의 사업전환 및 사업다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인력·정보 등의 측면에서 지원이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貿易體制를 선진화 할 수 있도록 貿易關聯制度를 GATT 체제로 轉換시키는 동시에 우리의 不均衡의 무역구조가 원貨 切上 압력 등 通商摩擦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인식하에 對美 무역불균형의 시정과 協力基盤을 강화하면서 일본·EC 등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經濟外交를 강화하고 수출입시장 多邊化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팔목할만한 經濟發展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외교를 추구해 나아가, 대선진국

과의 관계 再定立, 對開途國과의 개발협력 擴大, 미수교국들과의 협력기반 擴充 등을 논의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對先進國과의 관계 재정립은 GATT, IMF, OECD 등 제반 國際協議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積極的으로 옹호하고 또한 새로운 國際經濟秩序의 개편에 능동적으로 기여하여 우리 경제의 대외지향적 發展與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며, 對先進國 관계의 다변화도 꾸준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 특히 EC와의 協力과 對話가 확대되어야 하겠고 조화로운 對美·對日 협력관계의 유지와 발전은 원활한 經濟先進化의 전제가 된다고 하겠다.

다음 對開途國과의 국제협력은 資源協力 차원의 相互交易 이상의 발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선진국을 지향하는 中進工業國의 위치에 걸맞는 차원의 對開途國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自由貿易秩序의 발전, 자본과 기술의 對開途國 지원체제 확충 및 1차산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들과의 關係 增進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수교국들과의 협력기반 확충노력이 중요하다. 오늘의 世界經濟는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가 기본적으로 相互開放과 國際協力を 추구하는 轉換期的 局面을 맞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하의 선진국과 개도국은 물론 중국과 소련 및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까지도 경제의 對外開放과 이를 뒷받침하는 內部改革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동서화해 무드 속에 새로운 차원의 國際協力關係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미수교국과의 경제교류에는 政府間次元의 협력 미비로 인한 특별한 위험부담, 대부분 국가의 외환부족문제 등이 潛在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70년대에는 미국과 일본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과다한 기대와 지나친 意慾보다는 무리없고 내실있는 경제협력을 摸索해 나아가야 하겠다.

이와 같은 다면적 協力基盤의 강화를 위한 노력 이외에 장기적으로 경제의 국제화가 뿌리

를 내릴 수 있도록 海外投資 등 산업의 國際化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일본의 과감한 해외투자가 円高 現象을 극복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듯이 우리도 국내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産業部門을 동남아·중남미 등으로 移轉하여 생산거점을 多地域化 하는 Global Strategy가 필요할 시기라 생각된다.

이러한 추세를 우리나라도 최근 海外投資가 급격히 增加하고 있는데서 찾아 볼 수 있는 바, 특히 中小企業의 해외투자는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推進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해외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각국과의 通商長官會談 등 相互交流을 확대하는 이외에 이미 16개국과 '投資保障協定' 및 26개국과 '二重過稅防止協定'을 체결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 해외투자자금 1,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100억원, 特別外貨貸出 1억불 등의 자금을 확보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투자정보의 效率的인 제공을 위해 中小企業振興公團 등을 활용하여 해외투자기업 정보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 4. 結 語

현재의 韓國經濟 狀況을 보는 시각이 非觀論과 樂觀論이 교차하는 가운데 노사분규, 임금상승, 원貨 切上으로 인한 Stagflation 등 구조적 景氣沈滯에 대한 憂慮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 相乘作用을 통하여 우리 경제를 침체국면으로 이끌고 갈 때 전환기에 처한 韓國經濟는 과거 유럽사회나 20C 남미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구조적 파탄에 빠져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다시 후진국으로 轉落하는 비운을 맞 볼지도 모른다는 危機感이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經濟變數들의 不確實性을 높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원貨의 환율도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될 經濟社會的 必要性이 높다 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높은 生産技術力과 일본형 노사관계로 円高 現象을 극복하

고 있듯이 技術開發과 生産性 向上, 노사협력 관계의 새로운 構築을 통하여 가격경쟁력 변화에 대한 對應 能力을 강화하고,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에 대한 體系的 支援을 아끼지 않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다만, 현재 通商摩擦 분야 중의 하나가 知的 所有權 분야임을 감안할 때 기업의 자체 生産

技術能力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Export Company에서 한 단계 높은 Foreign Operation Company 나아가서 Global Company로 轉換하는데는 인식과 경영상의 일대 革新이 필요하다는 것을 自覺하여야 할 것이다.

## 經濟用語

### ◆ 이동발생원 (mobile sources)

이동하면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것을 가리킨다. 특히 NO<sub>x</sub>의 배출, 소음, 폐유 유출 등을 막는 것이 오염 방지의 초점이 되고 있다. 공장 등의 고정 발생원에 비하면 책임 부담 등을 명확히 하기 어렵고 집단적인 공해 방지책을 취하기 어렵다.

### ◆ 더드 파티 (third party)

비계열(非系列) 회사. 원래는 제 3자라는 의미. 메이저의 자본이 참가하고 있는 자본계열회사에 대해 메이저 자본이 참가되어 있지 않은 제 3자적 회사를 비계열회사라고 한다. 1978년 이란 위기를 계기로한 세계적 원유수급 팽박으로 메이저는 비계열 회사에 대한 공급을 삭감했다. 이 때문에 비계열회사는 계열회사에 비해 원유 확보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인 때가 있었다.

### ◆ 브레튼 우즈 체제 (bretton woods system)

IMF를 중심으로 한 2차대전후의 국제통화체제를 IMF 체제라고 일컫는데 1944년 IMF 설립 및 그 활동개시 이후 '71년 8월 소위 「닉슨 쇼크」까지의 약 4반세기 동안 세계경제를 지탱해 온 국제통화체제를 브레튼우즈 체제라고 한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중심은 제 2차세계대전 전 각국의 평가절하(平價切下) 경쟁으로부터 국제경제, 통화제도가 파탄되었던 사실의 반성으로 IMF를 통해 가맹국의 의

환시세 환율을 안정 시키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순금 1온스 = 35달러라는 금의 공정가격에 의해 금 또는 달러에 대한 각국의 IMF 평가를 설정.

### ◆ 잔존수입제한 (residual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

가트(GATT)는 국제수지의 적자가 심각해지거나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이외는 수입 수량의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선진국 중에서는 국내산업보호 등의 이유에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때가 있다. 그것을 잔존수입제한이라고 하며 그 대상품목을 잔존수입제한 품목이라고 한다. 잔존수입제한을 할 때에는 ① 가트 사무국에 품목을 통고한다. ② 2국간 또는 다수국간의 협의를 진척시킨다. ③ 가트 의무정지에 의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등으로 되어 있다.

### ◆ 브리지 론 (bridge loan)

자금소요시점과 자금유입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단기차입 등에 의해 필요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브리징이라 하며 이를 위해 도입되는 자금. 현행 외국환관리규정상 브리지 론은 장기차관 계약에 의하여 차입하는 자금으로 상환하기 위한 일시단기 외화차입을 말하는데 통상 갱신(rollover)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갱신가능 단기차관이라 한다.